

# TF

## Territory File

최수익 / 건축사사무소 팀531  
 by Choi Soo-ik

### 만남

TF—territory file—굳이 이 집의 이름에 영역이라는 뜻을 갖게 한데에는 건축주의 의식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지, 주변 컨텍스트(context)와의 관계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삼각형형상의 이 대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의 인상은 강력한 두 개의 수직콘크리트옹벽에 의해 레벨이 조정된 흔히 보이는 전원주택단지의 한 조각이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련한 먼산과 가까이 소나무가 울창한 숲, 그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새소리도 맑고 투명해서 나의 생각은 주변의 풍경에 스며드는데, 그 위에 담장을 올려 쌓아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건축주의 보충설명이 뒤따랐다. 차단이었다.

한정과 무한정사이, 영역을 지키는 의식과 허물려는 의식의 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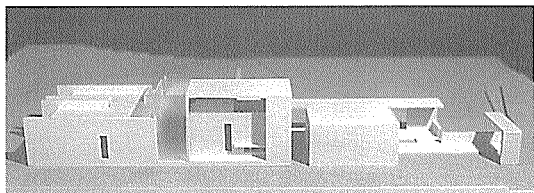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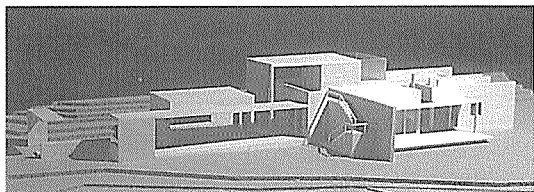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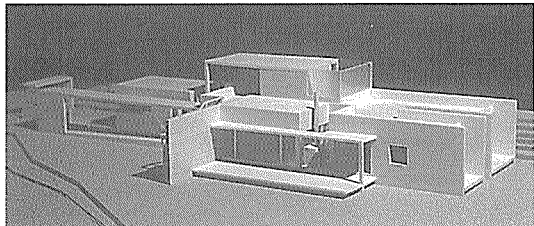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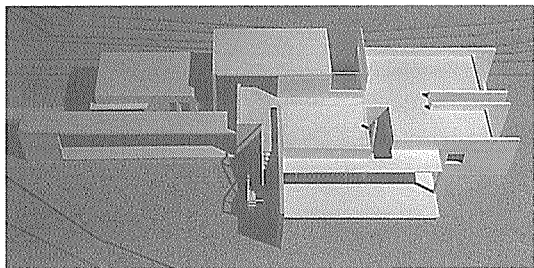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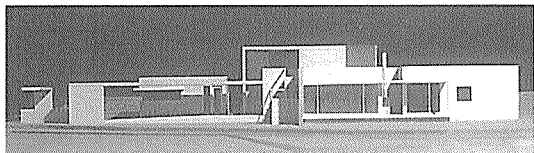
### 영역

영역이란 감히기도 하고 무한히 확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감히서 확대되기도 하고 확대된 것은 의식이 막히면 다시 감히기도 한다. 에너지가 넘쳐 전율이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너무 멀어 소멸된 에너지의 꼬리를 보며 즐리웁기도 하다.

속삭이듯 다가오는 낮은 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좁고 수직으로 열린 벽뒤로의 호기심어린 공간,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높게 달린 창. 한껏 열어젖히고 마음껏 받아들이는 없는 벽. 이러한 장치들은 영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것들이다.

### 벽

중력이 없는 벽은 자유롭다. 서 있는가 하면 눕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벽과 바닥 혹은 지붕이라 한다. 그런 벽들에 의해 사물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수직과 수평으로 선 벽들에 의해서 외부의  
 뜰이 한정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필터가 된다. 벽이 있음  
 만으로도 에너지가 생성되어 파장의 흔들림을 느끼고 벽으  
 로 구석이 생기는가 하면 그 벽이 움직여 일순 또다른 힘이  
 그 뒤편에서 맴돈다. 내외부가 하나가 되고, 흩어져 무한한  
 바깥 세계로 인도되는 신비이기도 하다.

나는 이 대지 위에 서있고 주변의 풍경은  
 스스럼없이 눈으로 들어온다.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교차되어 들어온다. 원색의 양철지붕, 폐광이 된 채석장,  
 굽어서 힘차고 빛깔도 푸르게 성성한 소나무 숲, 그리고 논  
 과 밭. 이러한 것들이 빛을 매개로 하여 벽으로 걸러져 보여  
 질 터이다.

벽을 하나하나 놓아본다.

깔아 놓고, 엮어 놓으며 세우기도 한다. 그  
 럼에 따라 미분화된 뜰이 생겨난다. 생겨난 크고작은 뜰은  
 거실과 방, 욕실 속에 녹아든다. 도시에 길이 있고 길에는  
 집이, 다시 집안에 뜰과 방이 있듯이 그렇게 이 집은 마을  
 한쪽에 자리잡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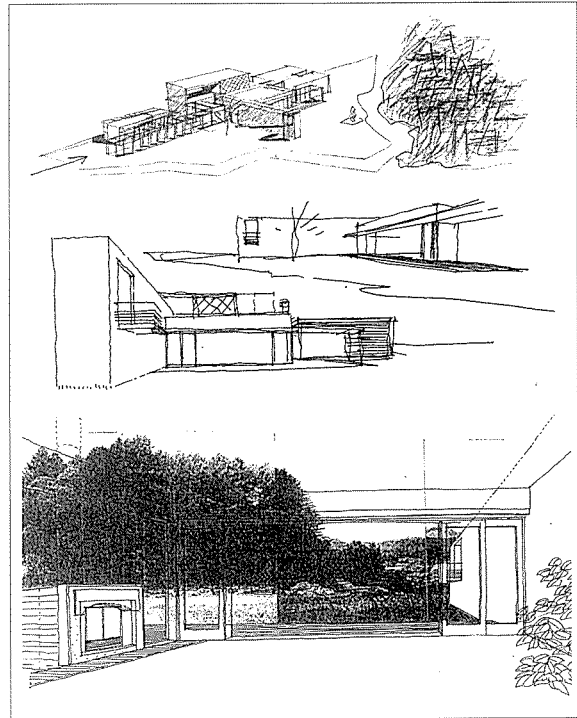
### 해야할 일

이제 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는 시작  
 되려는데 걱정이 된다. 도면을 놓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데 질문은 다른 주제로하여 화제가 바뀐적이 많았다. 설계  
 할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공사할 때에는 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가 모르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로 감리에서 손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지만, 웬지 미  
 진한 느낌이 든다. 전적으로 설계자의 의견에 맡기겠다는  
 건축주의 말이 그래서 공허하게 들린다.

그래도 내가 해야할 일은 엄연히 있다.

차단의 상징인 옹벽을 정리하고 자세히 보  
 면 시멘트로 포장된 개울바닥을 뜯어내야 한다. 어지러운  
 풍경을 걸러내고 근사한 조망을 얻는 것은 권리이다. 뜰이  
 란 건물을 짓고난 나머지가 아니다. 한정과 무한정으로 위  
 요와 확대를 이루고 벽의 적절한 위치와 크기가 그런 공간  
 을 이룬다. 그러기 위해 놓여진 벽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 검증되어야 하고, 공사비 예산에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  
 다. 그리고도 현장에서 생기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그것들이 앞에 있다.



스케치

